

호스피스 증례 발표

-가톨릭 대학교 부평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 팀-

사회사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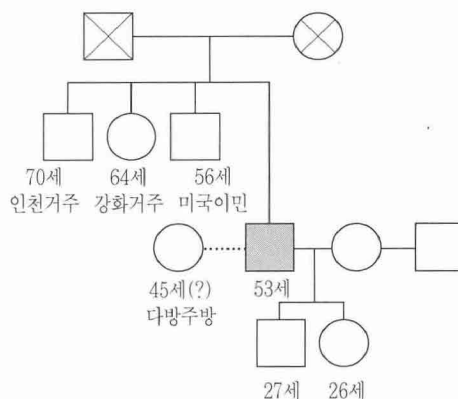
▶ 환자의 일반적인 사항

- 성 명 홍 ○ ○
- 성 별 Male
- 연 령 53세
-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농리 ○ ○ ○
- 직 업 무직
- 종 교 가톨릭(루가)
- 주거형태 형 집. (前: 보증금 700만원/월 20만원 월세방(3평)에 독거했었으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밀린 월세로 다 썼다 함)
- 학 력 고졸
- 경제상태 하(한시생활보호 1종; 월 79,000원 보조). 빚 1,000만원
- 의료보장 의료보호 1종
- 진단명 진행성 위암(Advanced stomach ca & multiple liver, esophagus mets)
- 입원일 2000. 6. 19.(99. 11. 서울 ○ ○ 병원에서 상기 진단 받았으나 chemo 거절, E 병원에서 conservative Tx 만 받아오다 develop 되어 00. 2. 11. 본인 최초 입원하여 chemo. 3차 실시하였음)
- 사망일 2000. 7. 22.

▶ 정보제공자

대상자와의 관계	성별/연령	직업	초기면담 태도	면담일
본인	M/53	무직	협조적	2000.3.13.
친구	F/45	다방 주방	협조적	2000.3.16.
큰형	M/70	무직	협조적	2000.3.18.

▶ 환자의 가계도(Genogram)



▶ 의뢰 경위

대상자 홍 00은 3남 1명 중 막내아들로 부인과 결혼하여 1남(27) 1녀(26)를 두었으나 8년전 환자가 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 건으로 수감 중 부인의 외도로 이혼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실패하여 혼자서 지내다가 99년 11월 서울 00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항암요법을 거절하고, E 병원에서 conservative 치료만 받아오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복부 통증이 심하여 2000년 2월 11일에 본원에 내원하여 증상완화를 위한 항암요법을 3차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치료를 못하고 통증조절만 하는 상태에서, 호스피스과에 4월 중순에 의뢰되면서 사회사업과의 호스피스팀이 개입하게 되었다.

▶ 환자의 개인력(Personality History)

대상자는 53세로 8년전에 이혼한 상태로 자녀는 부인이 데리고 가서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두절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혼 후 큰형 자금을 빌려 사업하다 실패한 상태로 형이 보증인으로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둔 거액(8,00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혼자서 생활하던 중 여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그 여자친구의 간병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제들과의 연락을 두절했으나 시신 기증 건으로 큰형, 누나가 알게 되었다.

시신기증 건으로 아들이 왔다 간 뒤 연락이 없다가 임종시 연락해서 왔고 3차 항암치료후 큰형수가 간병하려고 했으나 대상자가 여자친구가 간병해 줄 것을 부탁하여 여자친구가 간병을 도맡아서 하였고 큰형이 치료비를 돕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누나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 사회사업과에 의뢰되어 도움을 주었다.

▶ 가족관계

- 여자친구(F/45) :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입원시 간병을 맡아서 하였고 대상자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임종 때까지 대상자 곁에 임종을 시켰다.
- 큰형(M/70) :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돌볼 상황은 아니었으며, 동생에 대한 원

망을 가지고 있으나 대상자에게 우호적이었고 대상자는 형의 신세를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 누나(F/64) : 강화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도움은 주지 못하였으나 병문안은 자주 왔으며, 간병 보조하고 있고 대상자의 여자친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둘째형(M/56) : 미국에 이민간 뒤로 연락이 거의 두절된 상태이었으며 큰형이 전화를 해서 동생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실에서 대상자가 원해서 전화통화 하였다.
- 아들(M/27) : 대상자의 시신 기증을 위해 한번 내원하여 보증서에 사인을 했고 임종 직전 연락하여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을 지켰고 환자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 딸(F/26) : 투병 상태이며(병명을 모름), 대상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락했으나 오지 않았고 임종 다음날 내원하였으며 딸은 역시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 문제 사정(Assessment)

- 1) 심리사회적 측면 : 대상자는 죽음에 대한 불안 및 투옥생활의 상처, 간음하고 이혼한 부인에 대한 감정, 자녀의 부정적 태도, 사업 실패, 이상의 경험이 혼재되어 인생 실패자라는 자괴감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주거와 간병 문제 : 자신의 거처(월세방)가 없어져 퇴원시 큰형 집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퇴원시 대상자와 가족, 혈연관계가 아닌 여자친구가 큰형 집에 머물며 간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대상자와 한 방을 쓸 수도, 따로 내 줄 방도 없어) 큰형수가 간병하는 것

으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대상자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 **개입 계획**

- 1) **심리 사회적 측면** : 정기적인 의료사회사업가의 지지적 면접을 통해 미정리된 감정에 대한 해소를 유도하여 가족과 대상자의 심리 사회적 준비 과정에 개입할 계획이고, 원목자와 협의하여 영적인 도움을 받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 2) **경제적 측면** :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사업과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며, 치료비 일부를 형과 여자친구가 부담할 계획이다.
- 3) **주거, 간병 문제** : 대상자가 편안하게 여기는 여자친구의 거처(월세방)로 옮기고 간병도 여자친구에게 맡길 계획이다.

▶ **치료 개입과정**

2000년 3월 16일

내과의사로부터 대상자의뢰가 와서 대상자를 방문하여 여자친구와 면담을 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적인 상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들었고 대상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들었다. 현재 대상자의 간병을 도맡아서 하고 누나가 가끔씩 와서 도와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불쌍해서 자신이 끝까지 돌보아 줄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2000년 3월 25일

대상자를 방문하였는데 편안한 모습이며 면회를 온 큰 형과 면담을 하였다. 대상자는 이미 자신의 병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로 시신기증서를 신청하였고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의사로부터

연락받고 사회사업과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 줄 목적으로 큰형과 면담하던 중에 대상자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형은 대상자에게 아직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대상자가 가장 편안해 하는 사람이기에 자신도 받아드리기로 하겠다고 한다. 대상자는 편안한 모습이며 여자친구의 간병을 받으면서 가벼운 산책을 할 정도의 상태이다.

2000년 5월 15일

대상자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호스피스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서울의 E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았음). 이미 자신의 병에 대해서 스스로 잘 받아드리고 있었으나 항암치료 후 자신이 조금씩 먹을 수 있고 몸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계획을 여자친구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2000년 6월 20일

대상자는 여자친구의 간병을 받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이며 편안한 모습이다. 누나가 가끔씩 오지만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남겨 두고 가는 여자친구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친구가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좀 더 살면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얘기했다.

2000년 6월 25일

대상자는 자신의 형제들과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닥아 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한 모습으로 받아드

리고 있으며 그동안 형제들에게 지닌 죄책감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했고 여자 친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였다.

2000년 7월 20일

대상자의 여자친구와 면담을 하였는데 대상자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 하며 불쌍하다는 말을 거듭 하면서 자신의 몸이 아파서 간병하는 일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며 남은 기간동안 끝까지 자신이 돌보아 줄 것을 다짐하였다. 호스피스팀들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며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2000년 7월 23일

입관식에 참석하였으며 가족, 여자친구들을 격려하였고 가족들도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 종합 평가

본 대상자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전환된 상황-퇴직, 구속, 아내의 간음, 이혼, 자녀 분리-부에 대한 원망, 사업 실패, 빚 보증 채무 등을 미처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사정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위암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사례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상호상승작용을 하여, 자신도 타인도 수용하지 못하고 배신만 당했다는 원망과 체념으로 자포자기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의료보호환자로서 가족들과의 연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지니고 있었다. 가족적 차원에서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부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상자에게 있다고 생각한 자녀, 형의 돈을 빌려 벌인 사업이 실패하여 파산한 형 등 가족과의 괴리가 있었다. 주거와 간병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주거지가 없

어짐으로써 반복된 입퇴원 과정에서 퇴원시 거주 문제와 간병인 문제가 있었다.

본 대상자에 대한 개입 내용은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가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공감해 주고, 죽음에 대해 수용하는 과정을 도와주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의 항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 이후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큰 형이 대상자를 임종 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자 쪽에서는 형에 대한 미안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간병과 주거 문제는 처음 큰형 집에서 형수의 간병을 받으면서 대상자가 불편해 하던 것을 대상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여자친구의 방에서 친구의 간병을 받으면서 지내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갖게 하였다.

이혼한 부인은 만나지 못했지만 대상자의 시신 기증 신청을 계기로 하여 아들이 환자를 만나러 와서 대상자와 한번 만났고, 이후 대상자의 임종 무렵 다시 환자를 찾아왔으나 대상자와는 대화를 나눌수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종 후에는 대상자의 입관식 참석과 호스피스 사별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대상자의 가족 및 여자친구의 애도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본 사례의 한계는 대상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반해 사회사업과에서 개입, 지원해 준 금액이 대상자의 욕구에 비해 적은 것이었고, 따라서 이후 호스피스팀에서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개입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또한 개입에 의해 환자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된 부인과의 화해, 친구와의 화해 등을 이루어 주지 못하고 부분적인 차원-형, 누나와의 화해, 가족들과 여자친구와 화해-에서의 화해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고, 임종 전 대상자의 상태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심리적인 문제의 개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없었다.

의사

▶ 주호소

5일간 지속되는 Tarry stool, 복통, 전신허약감

▶ 현병력

상기 53세 남자 환자는 99년 서울에 있는 00병원에서 known advanced stomach ca, multiple liver, esophagus metastasis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증상치료만 받다가 전신허약감, 복통, 구토 심해져 호스피스 간호를 받기 위해서 본원에 2월에 내원하여 항암요법을 3차례 받고 5차례 입퇴원을 하였다. 현재 입원 5일전부터 설사가 계속되고, 복통, 전신허약감 등이 있어서 6월 19일에 입원하였다.

▶ 과거력

상기 병력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

▶ 가족력

조카가 ALL(L2)로 연대 세브란스에서 치료 중임.

▶ 이학적 소견

내원시 혈압은 130/70 mmHg, 맥박수 74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6.4℃이었고, 흉부청진상 특이 소견 없으며 복부 검진상 3횡지 간중대가 촉진되었다.

▶ 검사소견

입원당시 CBC상 백혈구 4600/mm³ 혈색소 11.0g/dl 헤마토크리트 27.8%, 혈소판 235,000/mm³, ESR 42 이며, 생화학검사상 TP 4.8g/dl ALB 2.9g/dl로 낮았으며, ALP 380IU/L, r-GTP 178IU/L, LDH 770IU/L 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고, BUN 9.0mg/dl, Cr 0.8mg/dl, Sodium 127mEq/l 이었고, 소변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음.

▶ 심전도 소견

정상 리듬임

▶ 치료 및 경과

입원 5일전부터 Tarry stool, 복통, 전신허약감으로 입원하면서 바로 금식을 하면서 수액요법과 투약을 실시하여 설사는 입원 1일 후 멈추었고, 통증 조절로 수액에 morphine 20mg을 수액에 혼합하여 계속 주입하였다. 설사가 멈춘 후에 죽을 먹기 시작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여 다시 금식을 하고 morphine 30mg로 증량하고 PRN 5-7.5mg 으로 6시간 간격으로 주면서 통증 호소는 없었다.

입원 4일부터 식이를 미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식이를 시작 1일 후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며 토하기 시작하여 금식을 다시 시작하면서 수액요법으로 영양공급을 해 주고, 입원 18일째 L-tube를 삽입하여 위 내용물을 밖으로 배출하였다. 환자가 L-tube 삽입으로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여 잠자기 전에 Ativan 1mg을 주었다. 입원 21일부터 L-tube로 Dark Brown color로 배출액이 나왔고, 입원 23일 환자가 L-tube의 불편감으로 스스로 L-tube를 제거하였고, 하루에 3-4차례 vomiting이 있었으나 L-tube를 삽입하는 것을 거부, 복부통증이 심해지자 입원 26일째 L-tube를 다시 삽입하였다.

입원 29일째부터 병실을 호스피스병실로 옮기면서 환자의 mental confusion이 있고 밤새동안 헛소리를 하면서 답답하다면서 L-tube를 본인이 제거하였다. 의식이 떨어지면서 하루 소변량 500cc미만이라 이뇨제를 사용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고, 하루에 3-4차례 토하면서 1차례 Hemoptysis 증상이 있었다. 입원 33일째 오후 1시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통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약해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가족(형 부부, 누나)들과 호스피스 담당자, 원목자, 자원봉사자들이 임종경을 하는 가운데 오후 5시 40분에 임종하였다.

간호사

▶ 입원동기와 증상

2000년 2월 vomiting, 전신허약감, pain이 심해져서 김포병원에서 L-tube 삽입후 호스피스 간호를 받기 위해 본원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여 3회 항암요법(FAMTX 2회, 5-FU + C-CPTV 1회)을 시행한 후 5차례 퇴원하였다가 입원하기 5일 전부터 Tarry stool, 전신허약감, 복통이 있어 입원하였다.

▶ 사회 경제적 배경

8년전에 이혼하고 현재는 혼자서 살아오던 중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으며 발병 후 수입은 없고 현재 형의 도움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의료보호 1종으로 치료비 부담은 만형이 맡아하고 있다.

본인의 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여자친구 역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일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지속적인 간병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상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나 애착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애정과 애뜻함이 있다. 대상자는 호스피스 간호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로 사후 시신기증을 하기로 하여 시신기증서를 쓴 상태이다.

▶ 신체사정

위장관 출혈로 여겨지는 설사를 하고 있어 허약감이 심하며 탈수로 인한 갈증과 37.6℃의 미열이 있다. 전반적으로 영양결핍상태로 보이고 출혈과 병의 진행으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 보인다. 간전이로 인한 복수와 하지부종이 있어 움직이기 힘들어 하나 자가간호는 가능한 정도이다.

▶ 간호과정

■ 병의 진행과 관련된 통증

1. 주관적 자료

“배가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2. 객관적 자료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며 움직임 때마다 배 부위에 손을 갖다대고 있다.

3. 간호목표

대상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4. 간호수행

① 대상의 통증의 빈도, 특징, 강도, 부위, 기간 및 통증 경험의 특성을 사정한다.

② 대상자의 통증을 사정할 수 있도록 통증사정표에 스스로 표시하면서 대상자와 함께 통증 정도를 사정한다.

③ 본인이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④ 진통제를 수액에 혼합하여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교육한다.

⑤ 따뜻한 물주머니나 마사지, 심호흡 등 효율적인 통증완화법을 소개한다.

⑥ 처방에 의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 효과를 관찰한다.

5. 간호평가

통증이 감소되었고 편안하다고 말하였다.

■ 가족관계 갈등과 관련된 심리적 고통

1. 주관적 자료

“다른 형제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형에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누나가 너무 잘해 주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너무 잘못 살았어요”

2. 객관적 자료

형이 대상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얘기한다.
 대상자가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인다.
 누나가 대상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인다.

3. 간호목표

- ① 형제들과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 ②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 ③ 형제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④ 미국에 있는 형에게 전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간호수행

- ①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 ②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원목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 ③ 국제전화를 연결해 주어 형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의탁하게 하였다.
- ⑤ 형에게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도록 대화를 주선하였고 또한 용서하도록 권유하였다.

5. 간호평가

형제들과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긴시간 동안의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1. 주관적 자료

“그녀에게 미안하다”
 “잘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신세만 저서.....”
 “건강도 좋지 않는데 간병한다고 고생만 하는데 형이나 누나는 너무 힘들게 해요”

2. 객관적 자료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언제나 안스러운 눈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본다.
 여자친구는 대상자의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는 얘기를 자주한다.
 하루종일 간병하는 여자친구가 많이 지쳐서 침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

3. 간호목표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여자친구에게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을 자주하여 대상자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4. 간호수행

- ① 대상자가 미안하다고 말을 할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줌으로써 대상자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 준다.
- ②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③ 여자친구로 하여금 대상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5. 평가

대상자가 자신이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

일한 것은 기도임을 말하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얘기하였다.

■ 경제적 도움에 대한 부담감

1. 주관적 자료

“여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서 너무 미안하다”
“형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2. 객관적 자료

여자친구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얘기한다.

형과 누나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얘기한다.

여자친구가 자신이 벌어들 돈도 이제는 다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3. 간호목표

대상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사업가와 면담을 주선했다.

4. 간호수행

- ① 주치의에게 사회사업과 의뢰서를 신청하도록 한다.
- ② 사회사업과 호스피스팀원에게 도움을 의뢰한다.
- ③ 가족들과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한다.
- ④ 헌혈증을 모아서 도움을 준다.

5. 간호평가

사회사업과에게 치료비를 적은 금액이지만 도와 주었고, 형이 치료비를 자신이 내어 주겠다고 얘기함으로써 대상자가 경제적 부담감을 해결되었다.

죽음을 잊고 살다가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 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 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이해인 수녀의 “사계절의 기도” 중에서

원 목 자

▶ 환자에 대한 묘사

대상자는 53세의 위암이며 큰 키와 큰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아픈 고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의 아픔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대상자의 곁에는 언제나 여자친구와 함께 하면서 대상자와 정다운 대화를 나누거나 깊은 눈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고, 과묵한 편이며 차분한 성격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었다. 대상자는 특별히 성모신심이 깊었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받아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 환자의 사회적인 측면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과묵한 성격이라 말이 없는 편이며 봉사자가 방문하면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하였다.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족이나 형제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방문을 오는 것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 부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면회객은 거의 없었고 아들이 시신기증서 때문에 한번 다녀간 후 오지 않았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함에 대해 언제나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과도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다. 다른 환자보다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형이나 누나가 오면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기도하거나 봉사를 해 주면 언제나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었다.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나 별로 내색하지 않았고 자녀얘기를 하면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들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형과 형수, 누나가 여자친구를 받아드려 주기를 원했고, 가족들과 대화를 통하여 여자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기뻐하였다.

▶ 영적인 측면

대상자는 언제나 병상생활을 하면서 묵주의 기도, 호칭기도 등을 열심히 하고 언제나 봉성체를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체력이 허락되면 언제나 미사참례를 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했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였으며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였다. 병상생활 중에서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은 온전히 봉헌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삶은 하느님안에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몸이 조금 좋아지면 앞으로 계획을 말하곤 하였다. 시신기증서를 봉헌하면서 자신의 잘못 살아온 과거를 보상받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원목신부님을 청해서 병자성사를 보았다. 원목자의 방문에 늘 감사했으며 함께 해드림을 기뻐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기도를 청하였다.

▶ 심리적 측면

대상자는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언제나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 형제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지 못할까 불안했다. 여자친구에게 언제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많았다.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6백만원)을 자신이 치료비로 사용함으로써 앞

으로 여자친구가 돌아가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면서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 임종이 다가오면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여자친구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였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겨두고 가는 여자친구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고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돌보아 줄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였다.

▶ 대상자를 방문하고 난뒤에

대상자를 처음 방문한 뒤에 느낌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드리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긴 여정이었다. 자신의 죽음앞에 과거를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받고자 하는 힘든 몸부림이 있

었고 남겨두고 가야 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더욱 아픔을 진하게 닦아오는 것이다. 언제나 호스피스 대상자를 만나면서 주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느낌을 받았고 투병생활 중에서도 언제나 기쁨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드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주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은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상자는 사랑의 이별을 하면서 아픔도 많았지만 그 어느 삶보다 마지막 마무리 삶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들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대상자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축복으로 영원한 사랑안에 영혼을 거두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자 >>>>

▶ 가족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

환자는 이혼한 이후에 전 부인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끔씩 자신이 건강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전 부인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말을 전해서 자녀들이 본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와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전 부인에 대한 원망과 자녀에 대한 섭섭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질병이 깊어짐에 따라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고, 자신을 방문하지 않음에 대해 자녀들이 10대일 때 자신이 이혼하였으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자신이 잘못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이해하려고 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보고 싶은 감정을 자제하려고 했다.

*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전 부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한 과거에 매여서 힘들어 하는 것은 병에 좋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면 자신 탓이라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여러차례 방문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좋지 않은 감정을 정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함께 하면 편안해 하고 자신이 왜 기도하지 못했음을 후회했다. 성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차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원목신부님이 오셨어 병자성사를 보았다. 병자성사를 본 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말하지만 지난날동안 많은 시간 전 부인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특히 자신과 함께 살아온 집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며 스스로 용서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고 마음으로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환자는 이미 병원에 올 때 호스피스 간호를 받기 위해 오셨기에 자신의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드린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증상 치료로 몸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였다. 여자친구에게 증상치료로 몸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퇴원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자신이 빨리 자신의 역할을 하면 성당에 가서 결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였고 주변에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미 자신에 병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드리긴 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삶에 대한 애착은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 조금씩 증상치료가 되면서 몸이 좋아지자 봉사자들이 방문하면 기도 덕분이라고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자주하면서 산책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봉사자들에게 농담도 하였지만 언제나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또한 다시 건강한 삶이 주어지면 성실히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표현하였다. 자신의 과거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언제나 커다란 눈에 그늘이 숨어 있었다. 단순히 고통에서 오는 그늘이 아니라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였다.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용서를 하시는 분이라는 말과 기도를 하면 안도의 표정으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 형제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온통 복잡하고 엉킨 실타래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큰 형에 대해서는 자신이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언제나 형이 면회를 보면 미안함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퇴원해서 형 집에 형수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 있는 형에게는 보고 싶은 감정과 자랄 때 자신이 형과 친밀한 사이였기에 형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기에 일부러 형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피하고 있었다. 큰 형은 자신의 동생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후자금을 동생이 낭비한 것과,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환자가 알기에 여자친구에게 미안함, 형제들에게 대한 죄책감 등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 큰 형을 만나서 동생에 대한 감정을 전해듣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동생을 마음으로 받아드리도록 얘기를 나누었고 함께 기도드린다는 말을 전한 후 며칠 후 형이 동생인 환자에게 가서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을 전했다. 형의 얘기를 듣고 동생은 울었고 또한 여자친구의 사심없는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미국에 있는 형을 보고 싶어 해서 주선해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형제들과 주변사람들에게 가진 죄책감은 병자성사를 본 후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다. 환자는 편안해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많았다

자신과 거래처 관계로 4년전부터 알아오던 여자

친구에게 자신이 중병을 앓으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자신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자신이 건강할 때 결혼하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으며 증상조절로 조금 좋아지자 희망을 가지면서 퇴원해서 나가면 결혼하지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자 섭섭함을 표현하였다. 언제나 고생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였고 자신이 죽고 난 뒤에라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로 위로를 하였다.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고 자신의 과거 때문에 폐쇄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참으로 늦게 만나게 됨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여자친구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기도할 때 꼭 환자는 여자친구가 옆에 있기를 원하였다. 환자에게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편안하게 하도록 권유하였고 특히 환자는 여자친구에게 신앙을 갖도록 얘기하였다.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였고 주변사람들이 여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기에 다른 형제들도 고마워한다고 말을 전해주었으며 형제들에게 직접 환자와 여자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권유하였다.

▶ 내세 세계에 대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드리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나간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 하면서 자신이 하느님 나

라에 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였다.

*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편안해 하는 표정으로 받아드리며 병자성사를 보고 난 뒤에는 참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신앙이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신이 죽고 나면 의지할데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힘없는 미소를 짓곤 했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신앙을 가지기를 말했고 시신기증 때문에 여자친구가 서

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천국에 먼저 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언제나 맑은 눈으로 봉사자의 방문을 반가워하고 또한 힘들고 지친 과거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답지 않게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드리는 환자를 방문하면서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의 끈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죽음에 임박해서도 힘이 없고 말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했고 힘든 과거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자신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 가 있는 루카형제님을 위해 우리 봉사자들은 오늘도 하느님의 자비를 바란다.

· · · 내가 살아야 할 이유 · · ·

내가 위암에 걸리면서 고생하는 나의 아내,
 눈물로 간호하여 준 그녀를 위하여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녀를 위하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그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녀에게 또는 저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꼭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진 빛이 너무 많아요.
 투병중에 당신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아주 조그맣게 진실한 사람 그것은 나의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늦은 동백꽃을
 보러 갔습니다.
 마음 설레이는 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쯤 여수의 돌섬에는 동백꽃이 피었겠지요.
 동백나무에 굵게 매달려 있는 채로 동백꽃 망울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동백꽃만큼이나 화사한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좋습니다.
 단 하루일망정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가치를 느낍니다.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내가 당신을 위한 식탁을
 꾸미고 싶습니다.
 당신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4개월간 내 곁에서 극진히 간호를 하던 당신을 보내면서 얼
 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울었는지요.
 당신에게 강인함을 보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어쩔 수 없어 방울져
 흘러내리고 말았지요.
 ...
 꼭 이겨내리다.
 당신은 분명히 여자이면서 나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어요.
 목련처럼 고결하게 그리고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힘
 앞으로만 달려온 시간들, 이제는 천천히,
 조금은 더 아주 조그맣던 당신과 함께
 (항암치료중인 풍00님이 아내에게 보낸 글입니다.)